고려고 엄벌? 광주교육청 이중행보 '의아'

성적 조작 강경대응 천명 불구 감사 자료 경찰에 제공 안해
수사 차질 속 지역사회 "재발방지 대책 흐지부지 될라" 우려

광주 고려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표면적으로 고려고에 대한 추가 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반면, 내부적으로는 감사자료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건 발생 후 엄벌 의지를 강조해온 진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그동안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 사건 때마다 대충 넘어갔던 사례를 들어 장 교육감이 이번에도 겉으로만 '보여주기식' 강력 대응 방침만 내세울 뿐, 내부적으로는 고려고의 행위를 대충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려고에 대해 징계 요구뿐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제재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관련 부서에 제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특별감사결과 시험문제 유출과 점수 조작, 우열반과 기숙사 운영 등 상위권 학생에게 특혜가 있었다고 보고 학교법인측에 교장(파면)·교감(해임)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추가적인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장 교육감은 "최근 교장, 교감, 교사가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 집회도 했다"면서 "학생들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감사를 통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적반하장이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교육청을 비난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도 된다"며 "교육청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광주의 다른 사립고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 이후 "재발방지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던 장 교육감은 고려고 사건이 터지자 "죄스러워 시민들께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엄정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고려고를 비롯한 부적정한 성적관리 행태에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경찰의 수사에는 제대로 협조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재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교육·사회단체의 고발에 따라 고려고 교장·교감의 업무방해 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해 시교육청에 특별감사 결과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시교육청이 발표한 것처럼 '빈칸'으로 제출한 서술형 문제 답안에도 점수를 주는 등의 채점 오류 1500여 건을 비롯해 상위권 학생에게 심화교육을 제공하는 등 학사행정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경찰에 감사자료를 건네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시교육청의 태도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교육전문가 38명을 동원해 1개월간 (고려고의) 교무 학사 운영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찰에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를 넘기기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해당 자료가 없으면, 4~5명에 불과한 경찰조사 인력으로는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층간소음 시비에 흉기로 찔러

군산경찰은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밤 9시 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의 한 연립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36)씨의 가슴을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고교생이 차량 훔쳐 사고까지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차량을 훔쳐 사고를 낸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22일 새벽 3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B(33)씨의 SM6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인 A군은 이 차량을 몰고 다니다 다음날 오전 6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을 하던 C(여·53)씨의 차량 옆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가 다쳤으며, A군이 훔쳐서 몰던 차량은 절반 정도 부서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군은 이차에 금품을 훔치려고 들어갔다가 차안에 스마트 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단속 2학기 개학을 맞아 26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운리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검찰, '수동 정지' 한빛원전 1호기 압수수색

검찰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한빛원전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한빛원자력본부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한빛 1호기 업무와 연관된 안전팀, 계측제어팀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12시간 뒤에야 정지시켰으며, 면허가 없는 사람이 감독자 지시 없이 제어봉을 조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범영광군민대책위원회'는 원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 6월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18재단,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만든다

28일 제정 관련 세미나 개최

'푸른 눈의 목격자'로 잘 알려진 독일 기자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의 이름을 딴 국제보도상 제정이 추진된다.

5·18기념재단은 "'힌츠페터 국제 보도상'(賞) 제정 세미나를 오는 28일 오후 2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5·18 참상을 세계에 알린 힌츠페터 기자의 이름을 딴 국제 보도상 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첫 번째 자리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으로도 유명한 힌츠페터는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의 일본 특파원 시절 택시기사 김사복씨와 함께 1980년 5월 20~21일, 23일 두차례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와 전두환 신군부의 만행을 현장 취재한 뒤 전 세계에 알렸다. 현재 힌츠페터와 김사복씨의 유해는 5·18 구묘역에 나란히 안장돼 있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주관하고 광주전남기자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김영기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창룡 인제대 교수, 김성재 조선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어 송진호 한국국제협력단 이사, 강철수 광주전남언론학회 회장, 이재의 5·18기념재단 비상임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세미나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노태우 아들 노재헌씨 5·18묘지 참배 "진심으로 사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54)씨가 국립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18 희생자들에게 사죄했다. 광주 학살 주범으로 꼽히는 전두환·노태우의 직계 가족 중 첫 사죄 사례다.

26일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묘지를 찾아 1시간 30여분 동안 머물렀다. 노씨는 이날 오전 묘지관리소 측에 전화로 방문 의사를 알렸으며 수행원 4명과 함께 방문했다.

노씨는 방명록에 '삼가 옷깃을 여미며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분들의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진심으로 희생자와 유족분들께 사죄드리며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5·18추모탑에서 헌화와 분향을 했으며 윤상원·박관현·전재수 열사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또 추모관과 유영보관소 등 5·18민주묘지 내 추모 시설과 5·18 옛 묘역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5·18묘지 참배는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재헌씨의 5·18묘지 참배는 고무적인 일이지만, 5·18피해자와 그 가족을 직접 만나 사죄하는 등 좀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씨가 지난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갓 출소해 슈퍼마켓에 보복성 방화…알고보니 가상화폐 채굴장

쌍나팔

○…갓 출소한 60대가 자신을 신고했던 사람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찾아가 보복성 방화에 나섰으나, 애꿎은 '가상화폐 채굴장'만 태우고 경찰 서행.

○…26일 목포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께 목포시 달성동의 한 가상화폐 채굴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A(60)씨는 과거 같은 자리에 있던 슈퍼마켓의 재물 등을 부순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한 지 9일만에 다시 슈퍼마켓 건물을 찾아가 불을 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슈퍼마켓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가상화폐 채굴장에 불을 질렀다"며 선처를 호소.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무안군 몽탄면 대형펜션
영산강 접 경관 최고 땅 48900㎡ 펜션 14동과 수영장 등. 광주서 20분 목포서 10분, 토지상의 2천여평은 복지시설 노유지시설에도 최고임. 32억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 고서면 산덕리 그린벨트 자연녹지 전과 산 1130㎡ 2억
• 영광 백수읍 백암리 서해안 조망최고 대지 등 1130㎡ 1억3천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4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쌍촌동 운천저수지 인근 대지 839㎡ 다가구 등 적합 8억3천
• 남구 서동 상가와 13가구 허가지역 땅 342㎡ 매도 4억3천
• 남구 덕남동 매립된 땅(답) 8232㎡ 주위조경좋음 9억4800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생활편리 5억5천
• 수목장 허가지 덕남동(화순읍 세량리) 6645㎡ 조망좋음 2억
• 사찰적합 남구 덕남동 산 26951㎡ 건물 67㎡ 주위환경 좋음 8억
• 운암동 아파트 상가 지하 205㎡ 사무실·창고 등 다용도 은행 8천 교환 1억8천
• 서구 치평동 대형건물 중 1층 264㎡ 현공실임 다용도 가능 은행 8억 교환 19억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92㎡ 약초재배·농장 등 적합 9천만원
상가건물
• 목포 옥암동 여관객실 27 대지 439㎡ 건평 989㎡ 국민은행 4억 매도 5천만원
• 문흥동 4층빌라 땅 410㎡ 건평 613㎡ 안집 30평(공실)과 16실 전세 1억8천 월 510. 14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 49평은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요양시설 최고 영광 법성면 땅 5416㎡ 1층 477㎡ 증축가능 환경양호 은행 4억 매도·교환 8억5천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종 주거지 답 4413㎡ 축협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4천
•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도로연결 좋음 물류창고 등 다용도 8억(은행4억5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오피스텔·소형APT적합 교환가능 12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접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임 야
삽니다.010-6834-7400
※맹지사절/신속처리※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